부평 음악 여행자 클럽

# 부평 JB

문화도시부평 시민 에디터

# 부평 음악 여행자 클럽

문화도시부평 시민 에디터

009p 여는 글
011p 부평에서 음악을 여행하는
락스타를 위한 안내서
027p Heat Up The Playlist
055p 뮤직플로우 인 마이 백
063p 공간, 음악, 삶 :
음악인들의 작업공간 들여다보기
093p 부평, 음악을 마시다
101p 국알못 송미영의
부평풍물대축제 관람기
115p 부평풍물대축제 속 청년들
127p 인천포크락캠프
145p 캔모아, 여름날의 노스탤지어
151p 시민에디터 후기

히치하이커 락스타

Music Collective

히치하이커 락스타

오재라

Music Collective

송미영

오재라

송미영

Music Collective

# 터무니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문화도시부평 사업을 진행하며 늘 시민과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고민이다. 올해 〈시민크리에이터〉 사업은 그 고민을 영상과 글로 풀어보았다. 그 중 '시민 에디터' 활동은 부평의 음악으로 주제로 시민이 직접 부평 곳곳의 녹아 있는 음악을 찾아내고 〈언더시티 프로젝트〉,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부평풍물대축제〉 현장을 누비며 글을 엮었다.

글에는 시민이 바라보는 지향이 담겨 있다. 지역을 관찰하고 축제에 참가하여 느끼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글로 담아내는 과정 모두의 그 지향이 오롯이 담겨있다. 거기에 더해 부평과 그곳의 사람, 행사에 대한 애정도 담뿍 담겨 있다. 지향과 애정을 글로 풀어내는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한 시민 에디터와 기획단에게 감사드린다.

여러 사람의 눈과 마음과 손을 거친 이 여정은 앞으로 여러 사람의 눈, 마음, 손으로 이어지고 기억에 남아 기존 부평 터무니에 더해가는 새로운 터무니가 될 거라 생각한다. 이 작업에 함께하신 모든 분과 앞으로 이 글을 공유할 모든 분이 이어갈 길에 '문화도시부평'이 옆에서 걸으며 행복한 무늬를 계속 더해갈 수 있길 바란다.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 부평에서
# 음악을 여행하는
# 락스타를 위한 안내서

허치하이커 락스타

부평의 골목을 걷다 보면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곳이 있다. 어딘가 익숙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거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올 때. 혹은 밴드 악기 소리로 주변이 쿵쿵 울릴 때.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비로소 미지의 공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쩌면 우리가 낮에 무심코 지나쳤던 부평 골목 사이에 말이다. 그곳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오랜 시간 엘피 디깅에 몰입한 사람. 취기가 도는 얼굴로 리듬을 타는 사람 그리고 재즈와 커피를 즐기며 혼자 무언가 끄적이는 사람까지. 그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 멋진 락스타가 되고 싶다면, 용기를 내고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누구든 환대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바로, 부평에서 200%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공간을 관찰하면서 수집한 꿀팁들을 말이다. 올드타운, LP하우스, 락캠프, 버브바이닐, 슬로스. 부평의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공간에 대해 소개하며 이 글을 오로지 당신의 끝내주는 음악 생활을 위해 바친다.

## 올드타운

### 혹시 창가 끝자리..... 좋아하세요?

올드타운의 여름은 혼자 오는 사람에게도 온다. 올드타운은 음악과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가는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부평구청역 4번 출구를 나온 후, 신트리 공원을 지나 청리단길을 쭉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다. 물론..... 이 길이 낯선 사람이라면, 공원의 이름이 '신트리'인지 '산토리'인지 감별하는데 신호 한 번을 지나 보낼지도 모른다. 언젠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부평의 여름 풍경을 마주하며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

혼자 카페 가는 일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다. 사장님 눈치가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는지, 개인 작업을 하기에 너무 시끄러운 곳은 아닌지 혹은 카페의 분위기가 나의 취향과 맞는 곳인지 등등. 이러한 점에서 올드타운은 최적의 공간이다. 뭘 좀 아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자리, 바로 '바' 형태의 창가 끝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음 올드타운에 간 날, 호시탐탐 그 자리가 비기를 기다리다가 공석이 되자 후다닥 앉는 손님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주로 에그 타르트와 커피 한 잔을 시켜 각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책을 읽기도 하고 노트북 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중간중간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나 별안간 길가에 멈춰 서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 그리고 산책하다 말고 풀숲에 얼굴을 묻는 강아지까지. 올드타운에서 마주하는 여름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내가 추천하는 일은 이어폰을 꽂지 않고 사장님이 선정한 음악을 듣는 것이다. 낯선 음악일지라도 누군가의 취향이 담긴 음악을 감상하는 일은 꽤 즐거우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인 만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 슬퍼할 필요 없다. 남몰래 다른 손님의 반려동물을 예뻐하면 된다. 될 수 있으면 관찰자의 시점으로 말이다. 주인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졸음은 어떻게 참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카페 안의 광경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나 홀로 공간 속에 붕 뜬 것만 같은 신기하고도 쓸쓸한 기분.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영영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을 말이다. 우리가 평범하고도 다정한 풍경을 마음에 담을 동안 올드타운의 턴테이블은 쉬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올드타운**

운영시간 : 월-일 11:00 - 22:00
주소 : 인천 부평구 길주로565번길 7-5 101호
연락처 : 0507-1370-5207
인스타그램 : @__oldtown

락캠프

## 주말 저녁 신선함이 필요하다면

정신없는 평일을 보내고 드디어 찾아온 금요일, 잠에 들기 전 머릿속으로 다짐한다. '아 이번 주 너무 피곤하다 집에서 푹 쉬어야지…' 그렇게 토요일을 침대 위에서 하릴없이 보내다 저녁이 되니 뭔가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한다. 이제와서 어딜 가자니 너무 늦은 거 같고, 소중한 주말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아쉬워지는 토요일 저녁이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다. 바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다양한 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이 무료로 시작되는 곳. 부평의 <락캠프>이다.

부평구청역에서 내려 5분만 걸으면 평화로운 청리단길의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신세계가 지하 1층에서 펼쳐진다. 가게 입구에서부터 락캠프의 역사가 느껴지는 공연 포스터들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CD들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당신은 분명 락 덕후. 잘 찾아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이 잘 보일 법한 테이블을 선점한 뒤 음악과 곁들일 메뉴를 골라보자. 다양한 종류의 술과 간단한 안줏거리가 즐비해 있는 와중에 커피나 음료들도 눈에 띈다. 놀랍게도 락캠프는 남녀노소 모두가 입장할 수 있는 장소이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도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다는 말씀! 친구나 연인과 와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지만, 자녀들에게 '락 스피릿 정신'을 조기교육 시켜주며 가족이 함께 락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진다. 이곳의 사장님도 굉장한 아우라를 지니고 계시는데, 역시나 '정유천블루스밴드'로 활동하고 계셔서 락캠프의 공연무대에 오르신다. 신나는 공연을 보고 있자면 여기가 정말 슬리퍼 신고 가볍게 나온 우리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흥겹고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짜릿함을 선사해 준다. 이 짜릿함에 중독되면 아마 매주 주말 락캠프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공연이 끝나고 밴드 멤버들에게 사인도 받고 기회를 엿봐 슬쩍 담소도 나눠볼 수 있는 것이 락캠프에서의 묘미! 이 글을 읽으며 이미 락캠프에 가보는 상상을 하고 있는 당신! 혼자서도 여럿이서도 즐거운 부평의 근본 라이브클럽 <락캠프>에 꼭 방문해 보시길!

**락캠프**
운영시간 : 목-토 19:00 - 01:00
주소 :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6번길 6 지하1층
연락처 : 032-518-1245
인스타그램 : @rockcamp_live

LIVE
CLUB
ROCK

## LP하우스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음악공간**

"저희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가세요!"

LP 하우스에 들어가 처음 들었던 인사말이었다. 이곳은 LP를 구매한 손님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 요즘 LP가 트렌드가 되면서 LP와 관련된 음악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엘피를 직접 골라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 적고 그런 곳이 있다 해도 음료값을 내고 시간제한을 정한다. 이런 점에 있어 부평삼거리역에 있는 LP 하우스는 요즘의 음악공간과 다르다.

매장에서 음반을 구경하다가 최애 음반을 발견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엘피를 틀어볼 수 있냐고 요청했다. 좋은 음질의 스피커로 듣고 반해서 턴테이블도 없는데 구매를 결정했다. 사장님은 내가 턴테이블이 없다는 걸 아시고 철없는 딸의 충동구매를 막는 아빠처럼 구매를 만류했다. 보통 판매자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이익 아닌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LP였기에 구매를 제지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LP를 구매하여 수집하면 턴테이블 구매를 위해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음악 취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LP를 수집한다 해도 듣는 음반은 한정적이고 장식용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턴테이블을 먼저 구매한 후, 엘피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셨다. 결국 그분의 의견을 수용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사장님은 LP 입문가인 나를 위해 LP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친절한 설명에 감명받아 엔지니어 전문가냐고 여쭤봤다. 사장님은 그저 엘피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다.

보통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에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데, LP 하우스는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매장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공유해 주는 모습에 한국인의 '정'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장님께 "턴테이블 구매하고 LP 구매하러 다시 올게요!"라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가게를 떠났다. 매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엘피를 감상하며 엘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사람 냄새 가득한 부평의 엘피 하우스를 추천하고 싶다.

**LP 하우스** 운영시간 : 월-일 10:30 - 19:00
주소: 인천 부평구 경인로 763
연락처 : 0507-1336-8689

슬로스, 버브바이널

## 부평에서 LP 바를 찾고 있는 그대에게

LP 바, 말 그대로 LP와 Bar인데 음악과 술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음악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LP가 그렇다. 4차 산업혁명이니 AI, 버츄얼 어쩌고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이미 사라져 버린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은 꽤 낭만적이다. LP가 주는 날것의 소리는 퍽 예민해서 나 같은 초보 수집가는 좋은 소리로 즐기기가 힘들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일단 판 수집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은 집에서 혼자 낑낑거리며 듣기보다는 정돈이 잘 되어있는 곳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듣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게 서울의 유명한 모 LP 바들을 전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인천 부평에도 훌륭한 LP 바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볼까 했던 그곳은 이제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착 공간이 되었고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 새로운 인연들과 즐거운 사연들로 나를 채워주었다.

그곳은 부평시장 깊숙한 곳에 있는 슬로스였다. 처음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간판도 없고 (지금은 있다) 아무리 봐도 다방만 보여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던 기억이 난다. 큰마음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가니 음악이 새어 나오던 하얀 문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아직도 슬로스의 문을 열 때면 처음 그날처럼 신이 난다. 슬로스를 처음 가는 그대, 두려워 말고 음악을 따라 올라가 보자.

슬로스의 장점 중 하나가 훌륭한 안주인데 어느 레스토랑들 뺨치는 솜씨와 비주얼의 파스타와 리소토들이다. 다른 안주들도 훌륭하지만 슬로스의 크림 파스타에는 감동이 있달까. 와인과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 위스키나 칵테일과 먹어도 페어링이 좋아 자주 시켜 먹는 나만의 꿀 메뉴다. 퇴근 후 1차로 밥 먹고 2차로 바를 가기보다 시간을 절약해 곧바로 슬로스에서 밥 겸 술 마시며 음악을 즐기는 게 어찌나 좋은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인들에게 한줄기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목요일은 신청곡으로 금토일은 신나는 디제잉으로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슬로스. 서울이든 인천이든 슬로스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면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실패 없는 나의 보물 아지트다.

그렇게 퇴근 도장 찍듯이 슬로스만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좋은 음악과 술을 동시에 즐길 수는 없는 걸까? 1차는 다른 곳을 가더라도 늘 2차는 슬로스에서 마무리하는 게 나만의 루틴이었는데 어느 날 테마의거리에 버브바이닐이 나타났다. 일단 테마의 거리 한편에 있어 친구들과 2차로 가기가 아주 편한 위치였는데 슬로스가 조용하고 과묵했다면 버브바이닐은 화려한 테마의 거리에 맞게 과감하고 도전적인 비주얼이다. 나 여기있소를 크게 외치며 그래피티며 커다란 드림캐처로 존재를 과시한다. 내부도 네온사인이며 각종 소품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엘피들과 디제잉 부스가 마치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해변 펍에

toilet

온 것 같다. 매일 신청곡을 플레이 해주는 것도 차별화된 점이었는데 물론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선곡은 반려된다. 이런 위치적 장점과 신청곡 시스템 때문인지 손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 때문에 메뉴도 매니악하기보다 캐주얼하고 보편적이다. 개인적으로 처음 가는 바에서는 진토닉이나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를 주문하는 습관이 있다. 그 가게의 진이나 술들이 내 입맛에 맞는지 알아보기에 무난한 칵테일들이라고 생각해서인데 버브바이닐은 다행히 합격! (주관적 기준이다)

부평에서 LP 바를 찾고 있는 그대! 혼자 또는 둘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나만의 음악취향을 찾고 싶은 날이라면 슬로스를, 친구들과 삼삼오오 수다 떨며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버브바이닐로!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맞춰 부평의 숨어있는 LP 바에서 음악과 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슬로스**
운영시간 : 수-일 19:00 - 03:00
주소: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79번길 19 2층
연락처 : 0507-1331-3582
인스타그램 : @slothrecordbar

**버브바이닐**
운영시간: 월-금 18:00 - 03:00 / 토일 17:00 - 03:00
주소: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403번길 38-22
연락처 : 010-9787-4038
인스타그램 : @verb_vinyl

# Heat up the Playlist

Music Collective

언더시티프로젝트x젓 업 더 스트릿

‘힛 업 더 스트릿’의 주제로 다양한 로컬 신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거리에 모였다. DJ 스테이지,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 실험적인 굿즈 숍과 미니 스케이트파크까지 부평 시장로 일대에 다양한 퍼포먼스 및 아트를 선보이며 유쾌한 소동을 벌인다. 부평 시장로 일대를 전부 체험존으로 사용하여 부평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쉽게 구경하고, 체험할 수도 있다.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즐겨듣는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소개한다.

Lonnie Liston Smith – Expansion

## Riot Skate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라이엇(RIOT)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스케이트 신을 지키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팀이다.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상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하고 있다.

**@riot.kr**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 부평에 위치한 라이엇 스케이트 숍을 운영 중인 김경호, 한태영입니다.

**Q 하고 있는 일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인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처음 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깊게 빠지게 되었어요. 소모가 빠른 스케이트보드 파츠를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하려면 서울에 있는 스케이트 숍에 가야만 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멋진 스케이트 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2014년 여름 처음 문을 열어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네요. (웃음)

**Q 작년에 이어 이번에 열린 '힛 업 더 스트릿' 언더시티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전의 언더시티 프로젝트를 비교하자면 어느 점이 달라졌나요?**

저희는 운 좋게도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더시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점점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메인 거리로 매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Q 이번 언더시티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대되거나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부평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인 부평 시장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서브컬쳐 신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게 보여 줄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Q 라이엇이 추구하는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스케이트보드 신의 활성화와 로컬 커뮤니티의 발전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라이엇이 올해로 9주년이거든요. 언더시티 프로젝트에는 참여하는 입장이었다면 곧 저희만의 행사를 독립적으로 열고 싶어요. 이를 통해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나아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 About

주로 Black Music(R&B, Hip-Hop)부터 재즈, 펑크까지 다양하게 즐겨 들어요. 스케이트 보더들은 Hip-Hop이나 락을 즐겨 들을 거 같지만 의외로 펑키한 Jazz도 스케이트 보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폭넓게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진스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웃음)

**Riot's Playlist**

Track 1. **Lonnie Liston Smith - Expansion**
Track 2. **Incognito - Don't you worry 'bout a thing**
Track 3. **Kid K - RPM**
Track 5. **Michael Jackson - Loving You**
Track 6. **NewJeans - Hype boy**

DJ Sina Hill

**"디제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원동력이 무엇보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라는 것도."**

이태원을 베이스로 주로 디트로이트 하우스를 플레이하며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보여주는 디제이. AOMG의 AOMIX, VislaFM 등의 다양한 매체와 베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MOTOR UNIT'이라는 프로젝트로 많은 DJ, 댄서, 포토그래퍼, 연주자들과 함께 힙합, 하우스, 테크노 등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환상적인 바이브로 파티를 기획 및 개최하고 있다.

@sinahill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DJ 시나힐입니다. 주로 디트로이트 하우스라는 장르를 플레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Q 하고 있는 일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6년 전, '더 소울'이라는 레코드 바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도중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가진 디제이 뽀삐를 만났어요. 뽀삐가 트는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마이너한 장르인 것을 보면서 저도 디제이를 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노래를 찾는 것이 직업이 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고 마침 뽀삐가 더 소울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가 더 소울 평일 디제이로 들어가게 되었죠.

**Q 현재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4년 전 레코드 바에서 신청곡을 틀어주는 디제이로 막 경력을 시작했을 무렵 잔잔한 옛 가요를 틀던 중 "서지원 - 내 눈물 모아"를 듣고 펑펑 울다 가셨던 손님이 기억에 남아요. 그날 이후로 그 바에서 다양한 연령대, 스타일의 손님들을 만나며 디제이가 선곡 하나만으로 춤추게 할 수도, 웃거나 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디제이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원동력이 무엇보다 손님과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라는 것도요.

**Q 언더시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번 언더시티 프로젝트는 인천 출신의 DJ BOWLCUT의 연락으로 함께 하게 되었어요. 부평구와 부평문화재단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는 시도 자체만 봐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디제이, 스케이트보드, 그래피티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이 없던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Q 시나힐 님이 추구하시는 음악적인 방향과 색깔은 어떤 것인가요?**

딱히 추구하는 방향과 색깔은 없어요. 제가 길을 걷다 뒤를 돌아봤을 때의 발자국이 저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올 저의 트랙들도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저의 작업물로 인해 누군가가 영감을 받고 더 다양한 장르가 한국에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massive attack

## About

음악을 안 듣는 순간이 없어요. 이번 '힛 업 더 스트릿'을 준비하면서 제 앞 타임에 플레이하는 DJ Blowcut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우스 장르의 음악을 디깅했어요. 그러면서 Ash Lauryn과 Stefan Ringer의 음악에 빠졌는데 미니멀하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트랙이 많아서 좋았어요. 요즘에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서 Fishmans의 앨범을 많이 찾아 듣는데 여름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The Highways Of My Life – Isley Brothers' 이 곡은 코로나 시절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 주던 곡이에요.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Sina Hill's Playlist**

Track 1. **Moodymann - I'll Provide**
Track 2. **Ash Lauryn, Stefan Ringer - Let's Get The Dub**
Track 3. **Fishmans - Go Go Round This World !**
Track 4. **Cortex - Automne - Colchique**
Track 5. **Isley Brothers - The Highways Of My Life**

Calvin Harris - Outside

## 그래피티 아티스트 DASOL

**"그래피티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랄까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곳에 아트웍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솔은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LAC 그래피티 스튜디오 크루의 멤버이다. 자신의 주 분야인 '그래피티' 를 시작으로 회화,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디지털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색깔로 작품을 표현한다. 그는 인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 자신의 아트웍을 끊임없이 남기고 그것을 보는 대중들로 인해 소통한다. '힛 업 더 스트릿'에서 선보인 다솔만의 색이 담긴 라이브 페인팅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dasol_is_here**

AC
RAFFITI
STUDIO
CULTURE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피티를 기반으로 디자인, 일러스트, 회화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DASOL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키치한 아트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Q 하고 있는 일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친누나가 듣던 힙합 음악을 따라 들으며 힙합 문화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리며 끄적이는 취미가 있었는데, 그러다 힙합의 4대 요소 중 그래피티를 알게 되었고 종이가 아닌 벽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Q 현재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저의 아트웍을 좋아해 주는 분들을 보며 보람을 느껴요.

**Q 언더시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같은 LAC 스튜디오 크루인 레오다브 작가님의 연락으로 이번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에 함께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피티 체험도 해보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확실히 예전에는 언더그라운드의 경계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나 패션 등등 다양한 분야에 그래피티가 많이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여기저기 전파되면서 점점 신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Q 이번에는 그래피티 체험 존뿐만 아니라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을 선보였는데요. 다솔 님이 선보이신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로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나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라이브 페인팅 때 진행한 작업은 Local, Culture 등의 레터링과 스마일 등 이미지적인 요소를 활용했어요. 레터링만 새기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 적인 요소를 넣어 좀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아트웍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Q 다솔 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 작업을 사람들에게 앞으로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양하게 시도하고 싶어요. 그래피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랄까요? 사람들이 지하철에 몰래 자신의 아트웍을 남기고 그러는 것도 그래피티 문화에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좀 더 다양한 곳에 아트웍을 남기고 싶어요.

## About

잘 때 제외하고는 계속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작업할 때는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하는 편인데 듣는 음악에 따라서 작업하는 그림의 스타일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악 장르는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듣지만, 굳이 꼽자면 EDM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DASOL's Playlist**

Track 1. **Calvin Harris - Outside**
Track 2. **Swedish House Mafia - Don't you worry child**
Track 3. **L'arc ~ en ~ciel - Pretty girl**
Track 4. **Porter Robinson - Look At the Sky**
Track 5. **Joji - Yeah Right**
Track 6. **Kanye West - Off The Grid**

## W.ANNA.W – mountain crystal

### 작가 윤산 Yoon Sahn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간접적인 감각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 동세대의 모습을 담고 싶어요."**

윤산 작가는 인천과 부평의 풍경들을 소재로 한 작업을 진행하는 시각예술가 이다. 모뉴먼트, 애니메이션, 옥외광고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회화, 조형으로 시각화한다. 그는 부평에서 현재와 과거가 연결되는 지점에 매료되어 있으며, 로컬의 상징적인 요소를 포착하여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동세대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끌어들인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시대의 파편화된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회화, 조각, 설치의 형태로 바꾸는 시각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하고 있는 일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Q 부평에 거주하신다고 들었어요. 원래 살고 계시던 곳인가요? 작가님의 시각으로 본 부평은 어떤 모습인가요?**

원래는 계양 부근에 살다가 부평아트센터에 갈 일이 많아져서 작년에 이사 오게 됐어요. 부평의 첫인상은 색이 다채롭고 형태가 독특한 빈티지 도자기 같은 도시라고 느꼈어요. 제가 간판 사진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부평에는 웃긴 간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부평이라는 도시는 참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Q 언더시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계기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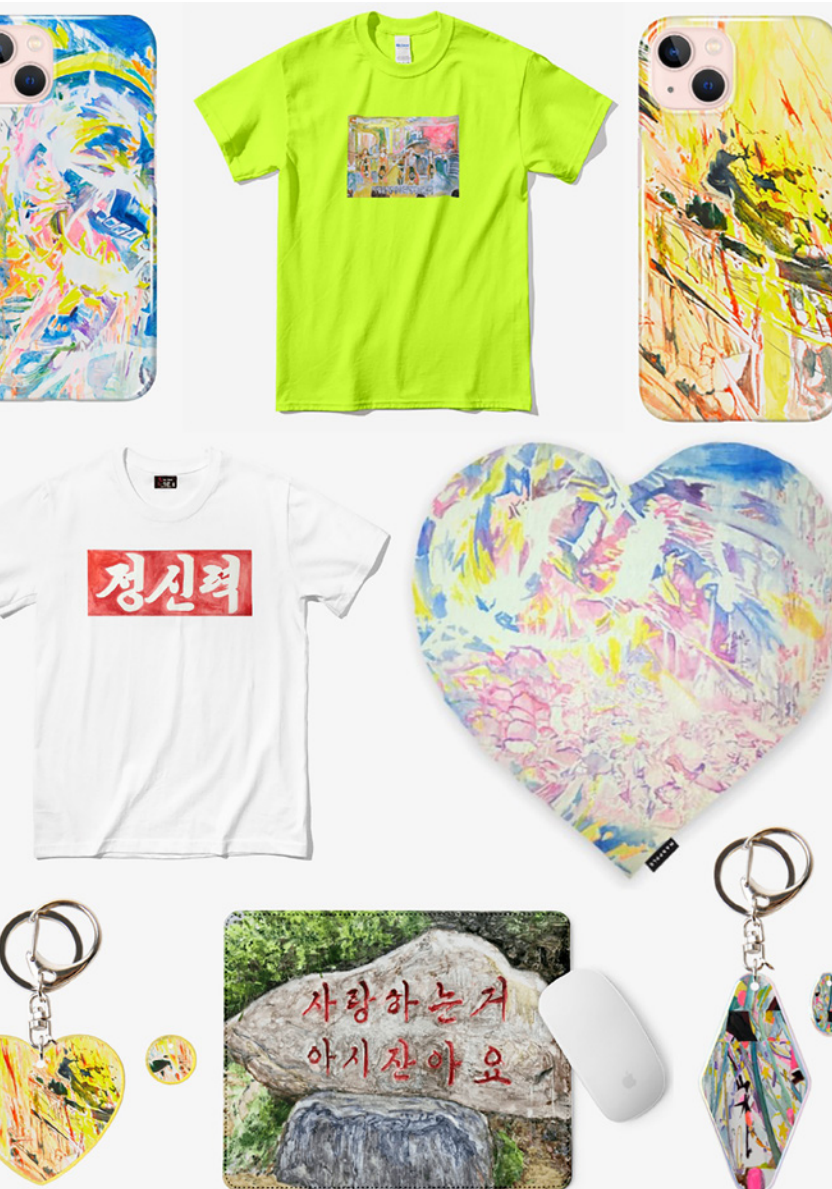
전시를 준비하며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작년과 다르게 날씨가 매우 더워서 체력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주변 작가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Q 이번 프로젝트에 전시한 굿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작년에 참여했던 제 작업은 원래 하던 작업 위주로 굿즈로 제작했다면 올해는 로컬 요소를 강조하여 작업했어요. 부평 로고나 부평구청 앞에 가면 있는 조각상, 그런 부평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어요.

**Q 윤산 님의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좌절된 경험을 유사한 경험으로 메우고 마치 그것을 획득했다고 믿는 습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껴지는 간접적인 감각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 동세대의 모습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저 또한 한 인간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행복을 잘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신차
사랑하는거
아시잖아요

## About

최근 듣는 장르 중에서 꼽자면 신스웨이브, PB R&B, 퓨처베이스 장르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Glen Check의 'Dazed&Confused' 이 곡은 여름밤 날씨에 걸으면서 듣기 좋아요. '힛 업 더 스트릿'을 준비할 때는 아주 오랜만에 **東北新幹線**의 Thru traffic 앨범을 정주행했어요. 원래는 TRPP의 앨범을 틀어놓고 작업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들으니 좋더라고요.

**Yoon Sahn's Playlist**

Track 1. **W.ANNA.W - mountain crystal**
Track 2. **Glen Check - Dazed&Confused**
Track 3. **Jovanie - Be Mine**
Track 4. **Trpp - Pause**
Track 5. **東北新幹線 - cloudy**

한명숙 – 노란 샤쓰의 사나이

부평문화도시센터 이미숙 팀장

"나는 부평이 고향이다.
몇 년의 부평은 나의 성장도시였고
몇 년의 부평은 나에게 스치는 도시였으며
현재의 부평은 나에게 일을 주는 도시이며
늘 고민하게 만드는 도시다."

부평문화도시센터 창조팀 업무 총괄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문화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부평이 지향하는 음악도시 브랜드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평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며 부평이 지향하고 있는 음악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 다양한 뮤직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브컬쳐를 기반으로 부평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도 함께하고 있어요.

**Q 하고 있는 일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무대조명 디자인을 하다가 자연스레 공연 제작이나 기획에 관심이 생겨 인연이 닿은 문화사랑방에서 공연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문화사랑방을 시작으로 2013년 부평아트센터 공연기획팀과 문화사업팀을 거쳐 현재는 문화도시센터에서 창조팀 업무를 맡고 있어요.

**Q 현재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부평에서 이런 일이?"라는 말을 현장에서 들을 때요. 외부에서 관객이나 주변에서 보고 계신 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부평의 부정적 이미지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민들이 느껴왔던 부평이 뭔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힘들었던 순간은 잊고 앞으로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을 내게 돼요.

**Q 부평이란 도시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평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나는 부평이 고향이다. 몇 년의 부평은 성장도시였고 몇 년의 부평은 나에게 스치는 도시였으며 현재의 부평은 나에게 일을 주는 도시이며 늘 고민하게 만드는 도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Q 팀장님이 바라본 부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평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베드타운 역할에만 그치고 있지만 현재 부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브컬쳐씬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부평에 관심을 가져주는 시민들의 반응이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Q 팀장님이 생각하는 언더시티 프로젝트 내 제일 매력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디제잉이죠. 처음에는 클럽 문화를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자신의 음악 세계를 한껏 드러내 즐기는 그들의 당당함을 존중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 About

브릿팝, 얼터너티브 인디 락을 찾아 듣는 편이고요. 요즘은 국내 인디밴드 음악도 즐겨들어요. 회사에 거의 도착할 때쯤 Radiohead의 'Creep', Trevis의 Sing 이 두 곡을 주로 듣고요. 주차장에서는 최대 볼륨으로 올려서 듣고 그 에너지 그대로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로 이어지게끔 해요. 플레이리스트 곡 중 문화재단 최초의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수록곡, 부평 미군부대에서 탄생한 1950~60년대의 디바, 한명숙 선생님의 '노란 샤쓰의 사나이'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왜 부평에서 대중음악의 시작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MISOOK's Playlist**

Track 1. **한명숙 - 노란 샤쓰의 사나이**
Track 2. **Nerd Connection - 우린 노래가 될까**
Track 3. **MacGuffin - Bucket List**
Track 4. **Travis - Sing**
Track 5. **Radiohead - Creep**

## 언더시티 취재 그 이후. 에디터들에게 묻다

**Q 언더시티 프로젝트를 직접 취재해 보고 참여 해 본 소감은?**

**용준 :** 디제이 음악에 맞추어서 리듬을 타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서브컬쳐는 단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서브가 된 것일 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아 :** 취재 당일 매우 뜨거운 날씨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열정적인 퍼포먼스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분들 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민영 :** 인천에서도 멋진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부평만의 특색있는 축제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 역시 부평이다! 젊음의 활력이 팡팡 터지는 부평의 색을 제대로 표현한 축제가 아닐까 싶어요! 무더운 날씨에 땀으로 흠뻑 젖고, 햇볕에 드러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도 음악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Q 축제 중 제일 기억에 남았던 프로그램이나 순간들**

**용준 :** 디제이와 스케이트 보더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그리고 여러 개성 있는 굿즈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열정들이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송아 :** 프리스케이팅.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파크를 형성해 놓아서 보더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타는지까지 다 보여요.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타서 신기했고 다칠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민영 :** 그래피티를 바로 라이브(LIVE)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스케이트보드나 부평 로컬 아티스트들의 굿즈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서 평소에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들을 집 앞 동네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연희 :** 우뚝 솟아 있는 탑 위에서 디제잉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무언가 행사 전반을 아우르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Q 사람들에게 언더시티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소개해 준다면?**

**용준 :** 색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싶다면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송아 :** 부평에 온갖 멋진 걸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면 참여를 권장합니다.

**민영 :** 부평의 유쾌한 소동을 즐기고 싶다면, 당신만 모르는 재밌는 문화들을 알고 싶다면, 얼른 여기로 합류하세요!

**연희 :** 이게 진짜 HIP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 신나는 거! 재미있는 거! 그게 바로 언더시티 프로젝트!

**Q 마지막으로, 언더시티, 혹은 부평과 잘 어울리는 노래 추천**

**용준 :** DRAMA, Vandelux – I Do – Vandelux Remix

**송아 :** 다이나믹듀오 – AEAO

**민영 :** Imagine Dragons – Natural

**연희 :** 서태지 – Moai

# 뮤직 플로우 인 마이 백

허치하이커 락스타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페스티벌에 갈 때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보통 페스티벌은 24시간 하루 종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챙기면 신체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들고 가기엔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전하다. 도대체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을 넣어야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8월 26일,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과 달누리극장에서는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그곳에서 음악과 공연을 사랑하여 부평을 찾아온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질문을 가지고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관객들을 대상으로 '축제에 갈 때마다 필수적으로 챙기는 물품'에 관해 인터뷰했다.

스탠딩 존을 선호하는지 피크닉 존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들고 온 물건들도 각양각색이다. 앞으로 페스티벌에 갈 계획이 있다면 '왓츠 인 마이 백'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물건을 준비하여 페스티벌을 보다 더 신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 생수, 커피, 간식

여름에는 역시 시원한 물과 음료가 최고! 목을 축였다면 출출한 배를 채워줄 간식은 덤. 온종일 페스티벌을 즐기려면 틈틈이 수분·당 보충이 필요하다. 커다란 텀블러에 얼음 가득 채워오는 것과 맛있는 간식거리 사 오는 것은 고인물 꿀팁!

### 데오 시트

땀으로 인한 끈적거림과 냄새를 둘 다 잡아주는 데오 시트! 물티슈 같은 제형이지만 피부에 자극 없이 매끈하게 닦인다. 남들보다 땀이 많이 나거나 후각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최고다. 다시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돌아가 즐기기를!

### 쿨패치

더위에 얼굴이 익을 것 같을 때 절실한 냉각 테라피. 모자만으로 막을 수 없는 열기를 가라앉혀 준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될뿐더러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도 최고!

### 보냉백

장시간 페스티벌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갖춰야 할 필수 아이템! 보냉백 안에 음료와 캔 맥주를 넣어두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다. 또는 아이스팩이나 각종 간식을 넣어두어도 좋다. 보냉백이 마치 보물 상자처럼 보일 것이다.

### 쿨토시

살 타는 게 걱정이라면 꼭 쿨토시로 온몸을 무장해야 한다. 피부가 약한 사람도 필수이다. 쿨토시에 물을 적시면 시원함은 덤으로 따라올 것이다. 역시 쿨토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보조배터리

군인에게 총알이 필수라면 덕후에겐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 필수. 하루 종일 공연을 즐기거나, 내 아티스트의 모든 모습을 남겨야 한다면 대용량 보조배터리는 필수다.

### 손풍기

귀엽고 아담하지만 실용도 만큼은 최고인 손풍기! 하루 종일 가볍게 들고 다니며 조금씩 더위를 식히면 어떨까? 충전형 배터리 손풍기라면 더욱 좋다. 보조배터리와 손풍기는 찰떡궁합!

### 모기기피제

페스티벌 속 숨은 빌런인 모기... 날이 어두워질수록 많아지는 벌레 때문에 공연 감상을 방해받을 것이다. 두세 번의 분사로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는 히어로!

### 부채

선풍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클래식한 부채는 어떨까. 거기에 내 아티스트의 MD라면 응원도 하고 더위도 이기고 일석이조다. 또 부채의 넓은 면은 양산처럼 햇빛도 가릴 수 있으니 금상첨화!

### 텀블러

요즘 페스티벌의 추세는 친환경 에코다. 트민녀 트민남이라면 일회용 컵보단 텀블러가 어떨까. 심지어 공연 중 신나게 몸을 흔들어도 쏟아지지 않는 편안함까지, 테이크아웃 컵과는 비교할 수 없다.

###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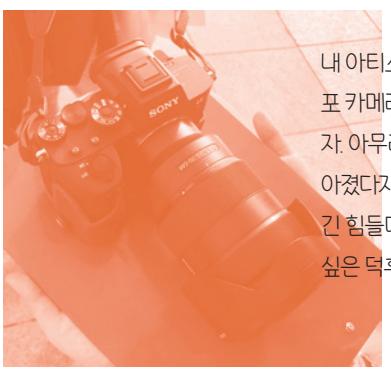
오전부터 모든 일정을 소화하려는 페스티벌러들이라면 양산도 꼭 지참하자. 양산이 없다면 우산이라도 챙겨보자. 생각보다 시원해 아예 없는 것보단 훌륭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선글라스

락시크 무드의 대표 아이템! 멋도 챙기고 햇볕으로부터 내 눈도 보호하자. 하지만 과한 헤드뱅잉은 분실을 부르니 주의하도록 하자.

### 캠핑의자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작은 사이즈로 하나 구비한다면 어디서든 그곳이 캠핑장. 오랜 스탠딩으로 힘든 당신 쉬어라.




### 카메라

내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면 무거운 대포 카메라 일지라도 오늘만은 견뎌보자. 아무리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좋아졌다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따라가긴 힘들다.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덕후를 위해!

### 밴드 티셔츠

이 가수가 내 가수다..! 왜 말을 못 해! 진짜 덕후는 어디서든 거리낌이 없다. 오늘 라인업에 없더라도 입어주는 게 의리다. 물론 밴드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면 한 번쯤은 재밌는 티셔츠로 위트를 더해보자.

**높은 신발**

스탠딩 존에서 서러운 순간 중 하나는 내 앞으로 서 있는 수많은 사람에 가려진 내 시야가 아닐까? 나도 오늘만큼은 탁 트인 무대를 보고 싶다면! 물론 과한 점프는 주위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지만 내 발목도 무사하지 못함 주의!

**맨몸**

어쩌면 페스티벌의 최고봉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대한 가볍게 와서 미치도록 뛰어노는 것! 그것이 최고 승자이다.

# 공간, 음악, 삶 :
# 음악인들의
# 작업공간 들여다보기

오재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공간에서 탄생했을까?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음악인들의 작업공간 들여다보기'. 부평 및 인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아티스트 4인의 작업공간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려 한다.

## 해원이의 갈색공방

**해원**

일상 속의 반짝임을 놓치지 않는 싱어송라이터. 데뷔 앨범 [Espal emit]를 시작으로, 해원만의 시선을 담은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다. 부평 출신으로 부평을 비롯한 인천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 그녀의 더 다양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해원이의 갈색공방'에서 만나볼 수 있다.

**@brown_gongbang**

'해원이의 갈색공방'에서 그녀의 기타와 함께

해원의 작업공간에서 보이는 풍경.
조명에 달린 장식품은 최근에 개항장에서 구매했다.

**Q 해원이의 갈색공방'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가장 궁금해요. 왜 '갈색'이고, 왜 '공방'인지, 그리고 이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살 때 처음으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옷을 사러 갔는데, 갈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갈색이 예쁜 색이라고 느낀 이후로 완전히 빠졌죠. 평생 좋아할 수 있는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색'을 타이틀로 잡았어요. '공방'은 이것저것 만드는 데에 관심이 많다 보니 붙인 이름이에요.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갈색공방'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해원이 작업하는 책상. '갈색공방'에 어울리는 책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따스한 노래가 탄생하는 공간이다.

**Q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내 방 소개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좋아하는 물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기타요. 예전에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산 기타가 있었는데, 손이 작다 보니 치기 어렵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 기타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사러 갔을 때, 선택지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소리가 되게 좋고 손이 편했지만 외관이 예쁘지는 않은 기타였죠. 다른 하나는 이 기타였는데, 줄을 갈기 전에는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이 예뻐서 고민하다가 이 녀석을 선택했어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테일러라서 소리는 기본으로 좋은데, 그중에서도 잘 안 나오는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전 주인분이 이것저것 예쁘게 꾸며놔 주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기타입니다.

**Q 사실 모든 가수가 작사와 작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는 노래를 직접 만든다는 것이 해원 님께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요.**

입시 때는 "그냥 해야 해"라면서 했었어요. 20살 이후에 학교 들어가서부터 입시를 위한 곡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담긴 곡들을 쓰기 시작했죠. 만드는 과정도 너무 좋았고, 그걸 사람들이 듣고 공감하고 위로를 얻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노래만 했으면 분명히 한계도 왔을 거고 음악을 오래 못했을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Q 이번에 나오는 앨범 수록곡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어떤 곡이 수록되죠?**

'콩벌레', '일까 말까',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낭만을 꿈꾸고 있는가' 이렇게 4곡이 실려요. 우선 '콩벌레'는 콩벌레와 관련된 저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일까 말까'는 꽃잎을 하나씩 떼면서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하는 그런 어린 감성이에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은 19살 첫 사랑 무렵의 풋풋한 감성이 담긴 노래예요. '낭만을 꿈꾸고 있는가'는 대학생 때 친구와 꿈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또한 낭만을 누리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걸 떠올리면서 만든 곡입니다.

데뷔 앨범 [Espal emit]의 시그니처 같은 시계.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구매했다.

**Q 노래의 소재가 독특해요! 평소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같은데, 보통 노래의 소재는 어떻게 얻으세요?**

평상시에 생각이 진짜 많아요. MBTI 파워 n이거든요. (웃음) 그냥 제가 보는 시선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꽂히는 상황이나 감정이 있으면 바로 메모장에 적어놓고 그걸 가사로 쓰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해원이 직접 만든 접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 '삐쭈'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다.

**Q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연출력이 돋보여요! 영상에도 관심이 있으신 편이세요?**

네. 예전에 영상 하는 친구가 BGM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편집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뮤직비디오를 친구와 같이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또 재미있었죠. 어쨌든 저는 기획하고 창작하는 일에서 성취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뿐 아니라 영상 쪽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혹시 영상 중에서 인천을 배경으로 찍었던 곳도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이긴 한데 가장 대놓고 들어간 게 제 싱글 [Espal emit]의 뮤비입니다. 다 인천에서 찍은 거예요. 월미도, 구월동, 원인재, 마장공원 등등이요.

**Q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원 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는데, 일하고 집에 오니까 도저히 작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작업에 집중해 보려 했더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과 휴식이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건 있어요. 요새 9시부터 2시까지 학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는데, 밖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집에 와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분배를 잘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Q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갈색공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원 님의 노래가 있으실까요?**

유튜브 시작할 때 만들었던 로고송 '해원이의 갈색공방'이요. 나중에는 앨범도 낼 생각인데, 그 앨범 수록곡 중 '그대라는 자수'라는 곡이 있어요. 자수

를 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감정을 여기다 기록한다는 곡인데, 자작곡 중에는 가장 연결되는 곡인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해원 님은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신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어쨌든 예술을 하고 싶은데,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의미를 담고 싶어요. 의미를 담은 노래나 글, 영상이나 그림 같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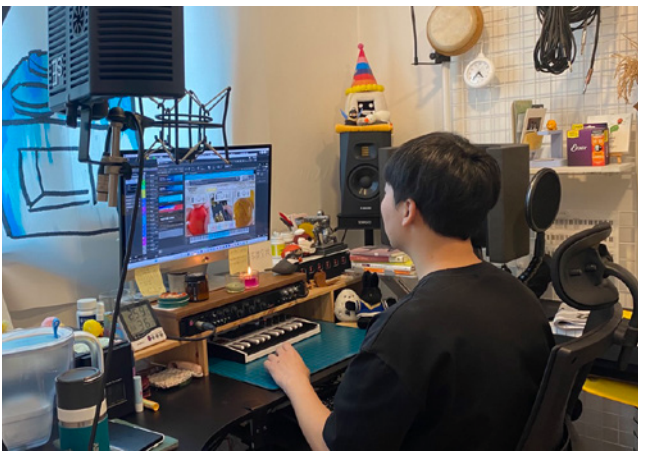
첫 뮤직비디오 촬영 때 찍은 사진을 인쇄한 패브릭 포스터

##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 전유동

인천에서 거주하며 작업공간을 두는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청아한 목소리와 힘 있는 가사로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한다. 2023년 6월 26일 두 번째 앨범 [나는 사랑이라 불러 자주 안 쓰는 말이지만]을 발매했고, 인천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과 부평문화사랑방 특별기획공연 등 인천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jeonyoodong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그의 아기자기한 작업공간.
다재다능한 그처럼 작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이다.

**Q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유동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묻는 말은 "어떤 음악을 하세요?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계에 아등바등하고 걱정도 많고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길 위에 멈춰있는 시간이 많은, 그만큼 많이 둘러보는 사람입니다.

**Q 언제부터 새를 좋아하셨나요?**

2015년에 경북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들 바쁘더라고요. 도심에 새가 많은데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요. 제가 남들보다 많이 멈춰선다는 것과, 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공연을 멀리 가게 되면 기다려져요. 날씨가 좋으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하면서 가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새와의 만남이 제 취향이에요.

**Q 2015년에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인천까지 오게 되셨나요?**

처음엔 "더 늦기 전에 서울에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친구들과 살았어요. 그런데 각자 뿔뿔이 흩어지면서 부담해야 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천으로 옮기게 됐어요. 지금이 세 번째 집인데, 두 번째 집은 햇빛이 안 들어왔어요. 집에서 무당벌레도 잡고, 청소도 어렵고, 공간이 되게 좁았어요. 음악적으로도 생활도 너무 힘들었죠.

**Q 점점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그런 데서 오는 만족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햇빛 안 들던 그 집을 생각하면 그 감정들까지 밀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죠. 내가 그런 시절도 겪었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함께해 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또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더 감사해요. 점점 더 좋은 환경으로 이

새를 사랑하는 그의 취향이 흠씬 드러나는 다채로운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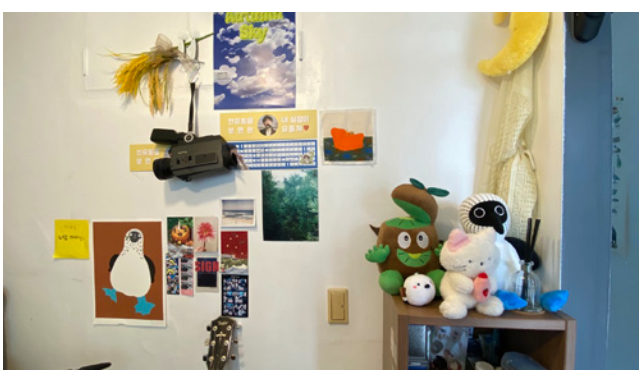
사하게 되면서 신발장이나 식물, 자전거, 책장이 생겼어요. 행거와 침대도 샀고요.

**Q 이 공간에 새가 정말 많아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물건도 많고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업공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다 보니까 약도 있고, 서류 작업하는 것도 있고, 비타민까지 다 있어요. 팬분들이 주신 선물이 많아요. 제가 제스프리 키위 광고에 나오는 캐릭터를 귀여워한다고 했더니, '푸른발얼가니새' 인형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코백도 팬분들과 함께 만든 거고요.

**Q 기타들에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애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애착이 많아요. 기타 레슨 수강생들한테도 기타 이름을 제일 먼저 지어주라고 해요. 애착을 가지라고. 이 기타는 안드레고요, 밑에 있는 기타가 아델라고요. 우쿨렐레는 호영이고요, 일렉기타는 올리비아, 안쪽에 있는 기타는 '알락할미새'랑 비슷하게 생겨서 알락할미새라고 부르고 있어요.



팬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소중히 다루며 애정이 묻어남을 보여 주었던 그의 작업공간 중 일부.

**Q 국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하는 음악에 영향이 있을까요?**

원래는 미술을 했어요. 예고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은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명암 주는 법도 다 알고 그리더라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려웠죠. 당시 취미로 기타를 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연주를 하다 보니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3 때 음대에 가고 싶었는데 1년 만에 피아노 실기를 준비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국문학과에 진학하면 작사작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학하게 되었어요.

**Q 유동 님의 노래 중 '주안역'은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인지 궁금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서 1호선을 탔는데, 히터까지 틀어 꿉꿉해진 지하철 안의 공기, 우산에서 물이 고여 흐르는 장면 같은 게 선명하게 기억나요. 주안역 지하상가 출구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만 전화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외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때는 부모님께 음악으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하던 때였고, "계속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걸까", "도망치는 건 아닐까", "응당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힘들 때 탄생한 노래, '주안역'입니다.

**Q 마지막으로, 유동 님 노래 중에서 지금 이 공간과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추천해 주셨으면 해요.**

2019년에 발표됐던 [인천의 포크]에 수록된 '무당벌레'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걸 만들 때 제가 정말 비루하고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음악을 접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막연한 위로를 담아서 만든 곡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이렇게 잘살게 되었잖아요.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고, 당시엔 뵙지 못했던 팬분들께서 이렇게 제 공간을 채워주고 계시고. 그 노래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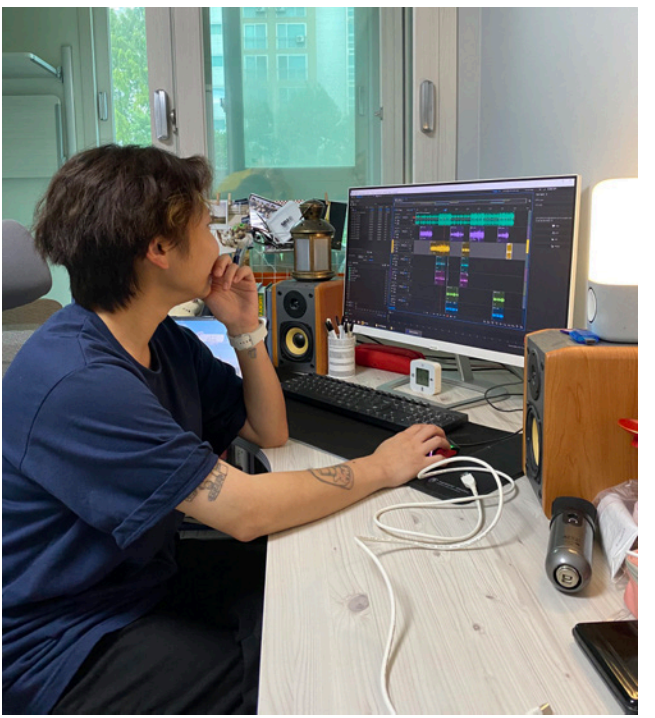
1. 그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던 애장품 중 (왼)호영이와 (오)안드레
2. 음악 활동을 하던 중 그는 기타 아델라에 난 상처를 보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다.
3.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템으로는 팬을 부르는 '벼'와 그의 모습을 본뜬 피규어를 꼽았다.

## 로컬콘텐츠와 함께, 뮤지션 라울

**라울**

음악 하는 영상제작자. 더 나아가 로컬 커뮤니티까지. 데뷔 싱글 앨범 [Recall]을 비롯한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로컬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가장 최근 발매된 앨범 [green room]에서 라울만의 세계를 들어볼 수 있다.

**@ura.ll**



라울의 작업공간. 작사와 작곡, 가이드 녹음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Q 안녕하세요 라올 님! 라올 님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이든 음악이든 커뮤니티든, 그 모양에 관계없이 콘텐츠 만드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김유라, 라올이라고 합니다.

**Q 음악뿐만 아니라 인천의 로컬창작자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초중고는 다 인천에서 나오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인천을 벗어났죠.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 사람은 20살이 되면 인천을 떠나잖아요. 서울에서 공연, 영상, 콘텐츠 등을 기획하고 음악도 만드는 프리랜서로 오래 활동했어요. 집이 인천이어서 일주일 내내 서울로 나갔죠. 인천으로 돌아오게 된 건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 시기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아티스트 영상을 만드는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상을 제가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단이 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더라고요. 붙고 나서 알았어요. (웃음) 그래서 냅다 부평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인천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Q 그때 만든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

'익숙하고 낯선'이라는 곡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부평 구석구석을 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처음 답사한 날 비가 많이 오는 부평공원에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때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세세하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 낯선 측면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익숙하고 낯선' 동네라는 느낌으로 쓴 노래예요.

**Q 서울에서 하던 일들을 인천에서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서울에서 하는 일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서울로 다닐 때는 길거리에 시간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해요. 특히 영상을 하니까 무거운 영상 장비를 챙겨 다니는 일이 스트레스였죠. 그게 줄어드

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나아요. 인천에서 로컬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모두가 불편하고 싫었던 게 '교통'이더라고요. 서울에서 모임이나 강의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도, 끝나고 언제 집에 와서, 언제 씻고 자고 출근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막막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로컬콘텐츠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Q 학창 시절에는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후에 영상과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커 가면서 운동을 잘하기는 하지만, 안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학에 갈 때쯤엔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영상물이 좋아서 영상과에 갔죠. 그런데 '영화'만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재미없게 느껴졌죠. 저는 대중적이고,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하고 싶었거든요. 음악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휴학하고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음악을 시작했어요. 졸업 이후, 아티스트들과 만나면서 영상과 음악을 엮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영상이 재미있어졌어요. 그동안은 영상이 되게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이나 사람을 표현하는 도구로 너무 좋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죠.

**Q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리고 요즘은 어떤 스케줄로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통 하루에 역할이 한 3개씩 있어요. 아침에는 선생님이었다가, 점심에는 감독님이었다가, 저녁에는 아티스트인 거죠. 하루에 3~4개씩 다른 역할을 하는 생활을 5년 정도 했었어요.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오다 보니 요즘엔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까 뭘 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꾸 까먹게 돼요. 조금의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쉴 때 보통 음악을 만드는 편이에요.

1. 작업공간에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 '봄이'와 함께
2. 라울의 애장품.
   (좌)대학 입학 때 산 필통과 처음 구매한 마이크.
   (우)그녀가 직접 만든 지갑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팀 버튼의 <찰리의 초콜릿 공장> 속 윌리웡카가 그려져 있다.

**Q 많은 할 일을 어떻게 분배해서 꾸려나가시는지, 일과 휴식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2020년도에 '오렌지기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음악에 손을 안 대다가, 작년 말에 앨범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음악 작업이 오래 걸리는 편이 아니라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약속이나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작업을 합니다. "작업해야지" 하고 앉으면 웬만하면 그날 끝나요. 일과 휴식의 분배는 사실 잘 못하는 편이에요. 쉬는 걸 잘 못하거든요. 한번 처지면 다시 예열하는 데 오래 걸리는데, 하루에 써야 하는 에너지가 많다 보니 아예 안 끄는 거예요. 마치 보일러 안 끄듯이요. 완전히 꺼도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안 끄는 편이죠.

**Q 작업공간에 노란색 아이템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집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고른 게 이 오렌지 의자였고, 그다음 노란색 냉장고였죠. 최근에는 소파를 바꿨어요. 이런 노란 색의 소파를 갖고 싶은데 계속 없어서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 친구를 찾았어요. 겨울 이불도 원래 노란색이었어요. 자잘한, 아기자기한 노란색보다는 눈에 또렷하게 띄는 것을 좋아하는 색으로 갖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Q 머스타드 빛 노란색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머스타드 계열의 노란색이 예뻐 보였어요.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제 이미지를 색으로 표현하면 쨍한 노란색도, 파스텔톤도 아니고, 이런 머스타드 색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하는 음악도 이 색깔처럼 밝고 대중적이고, 기분이 좋은 음악이었어요. 사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반대죠. 말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첫인상은 시끄럽고 알록달록하지만 오래 보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친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밝은 건 맞는데 어딘가 탁한 색깔이라서 맘에 들었어요.

이 집으로 이사하며 구매한 오렌지색 의자와 머스타드 빛 냉장고.
라올이 좋아하는 색깔이다.

**Q 마지막으로, 이 공간과 어울리는 라을 님의 음악을 하나 추천해 주셨으면 해요.**

6월에 낸 앨범의 첫 번째 트랙 'if you know you know'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곡은 관계에서 찌질한 저 자신에 대한 곡이에요. 살면서 많은 사람을 스치고 만나고 또 스치고 만나잖아요. 저는 과거와 관계에 연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저 자신을 담은 노래예요. 4년간 음악을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만든 첫 번째 곡이고, 이 공간에서 만들어진 노래라서 더 의미가 있어요.

지난 6월 발매한 앨범 [green room]의 앨범 아트.

## 청춘은 꽃, 신용남

**신용남**

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와 눈빛의 아티스트. 인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동시에, 싱어게인2부터 슈가맨, 복면가왕까지 방송에 얼굴을 비추며 대중들에게 '가수 신용남'으로 눈도장을 찍고 있다. 2008년 글루미 써티스로 데뷔하여 2022년 11월 [청춘은 꽃]을 발매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

**@yollems**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음악 하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쭉 지금까지도 부평에 살고 있는 신용남입니다.

**Q 최근 발매된 [청춘은 꽃]의 제작 과정이 궁금해요.**

어느 날 문화재단 사이트에 '부평구 문화재단 지역 뮤지션 앨범 제작 지원사업' 공고를 봤어요. 예전에 우연히 부평 가족공원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

녀상을 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혼자 휘갈겨 놓은 글 하나가 떠올랐어요. 집에 가서 컴퓨터를 뒤져 찾았죠. 그 글 이름이 '청춘은 꽃'이었어요. 이후에 그 글에 가사를 덧붙여 노래를 만들었고,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죠.

**Q 인천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세요?**

부개역 근처 철길을 되게 좋아해요. 봄에 벚꽃 피면 되게 예쁘거든요. 예전에 군수물자를 나르던 역할을 하던 길인데, 어느 순간부터 통행이 끊겼다고 해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많이 놀았어요. 최근에는 철길마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청춘은 꽃'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처음 나온 장소가 철길마을 기찻길이에요.

**Q 지난번 출연하신 <복면가왕>에서 "이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 음악 생활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음악 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소속사의 도움을 받으며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 음반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로지 개인 의지만으로 음반을 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동력이 끊길 때가 있죠. 작업하다 보면 몇 달씩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떤 공연에서 무대에 선 이후에 "너무 좋았어요" 또는 "음악을 찾아 들어봤어요" 같은 그 얘기들을 듣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음악을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Q 용남 님만의 작업방식이 있으실까요?**

멜로디를 먼저 만들어 녹음해 놓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저에게 익숙해지게 끔 해요. 익숙해지면 가사를 붙이고 그다음에 편곡하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멜로디를 먼저 쓰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때에 따라 글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곡을 입히는 방식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작업 공간을 마련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동선이나 분위기라든가요.**

동선이 중요해요. 악기가 너무 멀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엉덩이 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책상에서 바로 손에 잡히는 위치를 가장 선호해요. 그리고 방음. 밤에 작업을 하다 보면, 소리를 키워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해서 방음은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Q 집에서 작업하다 보면 휴식과 작업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밸런스를 찾으시나요?**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하면 작업실을 따로 구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죠. 작업실에서는 작업만 해야 하는데 집에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잠도 잘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배고프면 밥 먹고. 굉장한 의지로 철저히 구분 지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의지박약에게는 좋은 방식의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마감일이 있는 작업이나 꼭 끝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집중하는 힘이 나오죠.

**Q 음악 외에도 평소 휴식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합니다. 드라마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전에 잠깐

방송 음악 작곡 일도 해서 드라마 OST를 좋아해요. 인천대공원이나 상동 호수공원에 가서 러닝도 하고, 농구도 즐겨 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 잔하는 것도 좋아하죠.

**Q 그렇군요. 용남 님께서 아끼는 물건이나 에피소드가 담긴 물건이 있을까요?**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총, 만화책이나 음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연이 있는 테이프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룰라 같은 댄스 음악을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난데없이 밴드음악을 들려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다음날 이렇게 가사를 적어서 줬어요. 이 종이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Q 소중한 추억이네요. 용남 님은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전공 실기를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전공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축되기도 했죠.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음악 하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생각이 담긴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아주 소수지만 저를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을 오래 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늘 초대해 주신 공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본인의 노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뽑자면 '청춘은 꽃'이요. 최근에 낸 곡이기도 하고, 부평에 대한 음악이기도 하고, 오로지 이 공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된 음악이라 이 곡을 꼽고 싶어요.

물건을 잘 못 버린다던 그의 뜻깊은 보물창고.

고등학생 때 밴드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인 녹음테이프. 그리고 친구가 가사를 적어 준 종이를 소중히 간직 중이다.

# 부평, 음악을 마시다

Music Collective

음식에 술을 곁들이듯, 음악 또한 훌륭한 곁들임이 된다. 이 곁들임의 경험을 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부평의 곳곳에서 음악여행자클럽 에디터 팀원들과 함께 경험한 여러 음식과 몇 잔의 술, 그리고 음악을 곁들인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 무국적 주점 – <기화> : 아름답고 고운 꽃

음악과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기화에 에디터팀이 처음으로 모였다.

여러 가지의 무국적 음식과 다양한 술을 파는 가게인 기화에서 두 가지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파스타를 익숙한 우리의 맛으로 풀어낸 토마토 김치 파스타와 스위스식으로 튀긴 케사디야와 감자전을 섞은 퓨전 음식 '케사디야 감자전'을 먹었는데 기화만의 독특한 감성이 인상 깊었으며 맛도 훌륭했다.

술은 소중한 만남에 어울리게끔 한국 전통 소주인 문배술을 주문했다. 문배술의 달콤한 배의 향긋한 내음 덕분에 한잔, 두잔 계속 해서 비우다 보니 다소 서먹하던 분위기는 느슨해졌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리드미컬하고 복잡한 공간에서 잘 들리는 음악이 아닌 편안하고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잘 들리는 '재즈'가 생각났다. 그렇게 우리는 재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남았다.

**Playist**

기화에서의 시간은 청춘의 냄새가 나는 Chet Baker의 곡 'Autumn In New York'와 아름다운 가사를 지닌 Stevie Wonder의 'Moon blue' 그리고 Laufey의 편안한 보이스로 흘러가는 'California and Me'가 생각나는 순간들이었다.

Chet Baker - Autumn In New York
Stevie Wonder - Moon blue
Laufey - California and Me
외 10곡의 플레이리스트

**기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42-69
**@gihwa_bar**

## Asian Food Bar - <369>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는 날, 에디터 팀은 두 번째 장소로 휴양지의 해변과 홍콩 야시장을 닮은 장소, 369를 들렸다.

이곳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밤공기를 맡으며 중국식 튀긴 닭고기 요리, 유린기를 먹었고 다양한 종류의 하이볼들을 마셨다. 함께 마신 것 중 연태고량주 하이볼의 향긋함과 짭조름하고 고소한 유린기의 조화는 홍콩의 밤을 그리는 듯하였다.

기분 좋은 바람과 맛있는 음식과 술로 기분이 좋아져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 각자의 살던 이야기, 현재 소식, 그리고 사랑 이야기, 예전에 듣던 밴드 음악까지 다양하게 곁들였다. 특히 서로 즐겨듣던 밴드의 음악을 공유했을 때, 그 음악을 듣던 시절로 돌아간 듯 눈을 반짝이던 모습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Playist**

369에 페어링할 음악으로 매장에서 많은 음악 이야기를 하게 만든 밴드 음악으로 선정하였다.

Bready Eyed의 'The Roller'와 라쿠나의 'I Love You'. 거칠지만 청량한 기타 소리가 팀원들과 함께 느꼈던 밤 공기를 닮아 택하였다.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 곡은 각자의 사는 이야기와 사랑의 기억을 아우르는 곡으로 369에서 나누었던 서로의 추억을 떠오르게끔 한다.

Beady Eye - The Roller
라쿠나 - I Love You
자우림 - 스물다섯, 스물하나
외 9곡의 플레이리스트

**Asian Food Bar 3 6 9**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45 1층
**@369.co.kr**

〈막걸리집개코네〉

많은 얘기를 함께하다 알싸하게 밤에 취해 찾은 세 번째 장소는 레트로 무드를 가득 머금은 막걸리집개코네였다.

후미진 골목 사이 주차장 입구 같은 오르막을 오르자 뜻밖에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갑 사정 걱정 없이 누구와 방문해도 부담 없는 곳, 왁자지껄 떠드는 사이 시간과 공간 모두 그곳에 스며들게 된다.

차가운 바람을 녹진하게 녹여주는 깊은 맛의 생고기 김치찌개와 겉은 바삭하고 두툼한 김치부침개에 맥주 켈리와 소주 새로를 곁들였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맛,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찾게 되는 술과 음식에 젖어 들어 서로에게 건네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웃음으로 피어났다.

이곳의 시끌벅적하고 레트로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들다 보니 리드미컬한 R&B 곡들이 귓가를 스치듯이 맴돌았다.

**Playist**

레트로한 신스팝의 향이 가득한 'Birdy의 Paradise Calling', 그루비한 네오 소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Musiq Soulchild의 '143', 절로 리듬을 타게 만드는 뉴잭스윙 곡, Hi-Five의 'I Like The Way'. 어떤 음악이 흘러나와도 청춘의 한 장면이 그려졌다.

Birdy - Paradise Calling
Musiq Soulchild - 143
Hi-Five - I Like The Way
외 9곡의 플레이리스트

**막걸리집개코네**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7

# 국알못 송미영의
# 부평풍물대축제 관람기

송미영

부평풍물대축제

한송, 혜미, 서영의 이름 뒷자리를 합쳐 우리는 '송미영'이 되었다. 서로 다른 우리의 공통점은 락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국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모여 '국악을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즐거운 부평풍물대축제를 다녀온 뒤풀이 수다를 시작한다.

**Q 부평풍물대축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송 :** 만약 비가 왔다면 축제에 가지 않고 집에 있고 싶었을 텐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는 매우 맑은 날씨였고, 축제에서 다들 흥겨워하는 기분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걷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 :** 맞아요, 야외에서 열리는 축제는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맑은 하늘과 시원한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었어요. 가까이 또는 멀리서 들리는 풍물소리가 흥을 돋우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축제를 즐기기엔 완벽했어요. 특히 참가자들의 알록달록한 의상과 악기가 돋보였어요.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를 걸으니 북적거리는 사람 속에 서 있어도 가을바람과 함께 탁 트인 개방감이 좋았어요.

**영 :** 사실 그날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았었는데, 혜미 님이 말한 것처럼 적당한 활력과 북적거림 덕분에 저도 덩달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부평풍물대축제가 있는 주말에 정말 여러 축제가 동시에 열리더라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정말 축제를 즐기기에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Q 풍물, 국악에 대한 평소 나의 인식은 어떠한가요?**

(나의 국알못력 봄내기)

**송 :** 한옥마을이나 지방 축제에 갈 때 가끔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풍물을 배운 적 있지만, 어렵기만 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 :** 저는 관심은 많은데 아는 건 없어요. 우연히 경기민요 공연을 보러 갔다가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함께 추임새를 맞추고 좀 더 즐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후로 퓨전국악과 궁중 국악, 판소리, 병창 등 여러 공연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신나는 걸 나만 알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로 팀원이 함께 국악과 풍물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영 :**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남들만큼 배웠어요. 아, 대학생 때도 가야금을 잠깐 배우긴 했는데, 급하게 배워서 금방 까먹었어요. 그래도 '이날

yes
우일

치'나 '씽씽밴드'같이 국악을 가미한 밴드 음악을 평소에 재밌게 들었고, 그 덕에 국악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Q 어떤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송 :** 춘향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릴 때 책으로 읽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기대가 많이 없었는데 풍물 음악을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미 :** 저는 일요일 오후에 진행했던 퍼레이드가 너무 멋졌어요. 3일 치 공연을 한 번에 몰아보는 느낌! 풍물뿐만 아니라 태권도, 치어리딩, 부채춤, 다른 나라의 문화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쉴 틈 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영 :** 저도 퍼레이드요. 축제의 알짜배기 같은 느낌이었달까? 중간중간 아프리카 음악, 치어리딩과 같이 다른 장르의 행렬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Q 축제 중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송 :** 고령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어린 연령대 분들은 축제를 잠깐 보고 떠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흐뭇했어요.

**미 :** 저도 한송 님과 비슷하게 느꼈어요. 일요일 저녁 풍물 축제가 끝나갈 때쯤, 풍물 소리는 좀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크고 둥글게 모인 사람들 중간에는 어린이, 젊은이, 어르신 할 것 없이 형형색색 풍물패들 사이에 섞여 함께 덩실덩실 뛰며 모두가 즐거운 표정으로 풍물 축제의 끝을 즐기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즐기는 모습이 보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영 :** 마당놀이 때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이 모여서 함께 원을 만들어 도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모두 행복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또 연주자와 관객의 위계가 허물어져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 전통 음악의 특색이 여기에 있구나 싶었죠.

신한은행
LA VIE ENR ROSE
류성훈 성형외과

**Q 축제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송 :** 풍물 축제가 도로를 막고 진행하는 축제여서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시는 지역 상인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위 상인분들을 축제와 관련 없다고 선을 긋지 않고, 또한 부평과 관련 없는 외부 상인분들을 모시기보다는, 부평에서 여러 먹거리를 판매하시는 지역 상인분들과 같이 축제에서 여러 부스를 운영한다면 더 풍성한 축제가 될 거예요.

**미 :** 이번 축제는 풍물 공연과 함께 전통 놀이, 체험 부스들도 알차게 준비되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한송 님 의견처럼 먹거리가 아쉬웠어요. 최근 타 지역축제의 먹거리로 문제가 많다는 걸 알지만, 인천이나 부평을 대표하는 지역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 :** 음…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괘적한 운영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무대에서 휠체어 이용자들을 무대 양쪽 편에 관람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퍼레이드에서는 노약자나 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즐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 위험할 수 있으니, 약자를 위한 구역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Q 풍물을 배운다면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나요?**

**송 :** 장구를 배우고 싶어요. 평소 다른 장르 공연을 볼 때 드럼에 리듬을 맞추면서 즐기는 편인데, 장구는 드럼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장구 같은 타악기를 연주하면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흥이 많이 날 거 같아요!

**미 :** 저도 장구를 배우고 싶어요. 춤추는 듯한 몸동작과 좌우 손에 다른 모양의 채(궁채, 열채)로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게 좋아요. 함께 어우러져 같이 박자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풍물놀이 안에서 장구를 치며 어우러지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송 님 같이 배울까요? (웃음)

**영 :** 저는 꽹과리요! 학창 시절 음악실에서 혼자 쳐봤을 땐 소리가 너무 크고 쨍해서 귀가 아프고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야외 마당에서 다른 악기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꽹과리의 음색은 그저 경쾌하고 신명 나더

신한은행
LA VIE EN ROSE
patagonia

라고요. 특히 풍물패 앞에서 연주를 이끌어가는 상쇠(풍물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늠름하지 않던가요? 또 꽹과리 특유의 부점 리듬이 마음에 들어요. 꽹과리를 연주하면 어느새 세상 시름에서 자유로워질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Q 공연 외 즐길 거리는 어땠나요?**

(참여 부스 탐방)

**송 :**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잠시 쉴 때는 딱지치기를 하면서 놀고 여러 홍보 부스를 구경했어요. 악기 체험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일정 때문에 하지 못해서 내년 축제 때는 가장 먼저 체험 부스로 가야겠어요!

**미 :** 저는 모자 만들기, 부평 막걸리 먹기, 어름산이 체험, 제기차기를 해봤어요. 가장 처음 체험했던 '모자 만들기'는 쓰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풍물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게 좋았어요. 내년엔 악기 체험에 도전 하고 싶어요.

**영 :** 저는 공연 위주로 즐겼는데, 전통 놀이를 즐기거나 국악기를 체험해 보는 어린이 참여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몸으로 경험하며 전통문화에 친숙함을 느껴볼 수 있는 활동들이라서요.

**Q 우리는 기본적으로 락이나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국악 공연에서도 나름의 매력을 느꼈죠. 국악과 장르가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송 :** 락 공연을 보면 관객들의 환호와 리액션에 따라서 연주가 더 경쾌해지고 신나는 공연이 되어가는데, 풍물 공연에서도 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

**미 :** 풍물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듣고 즐기는 사람도 모두 하나가

휘몰이가락 Hwi Molyi Ga Rak
별달거리 Byeol Dal Geori (Jang gu)
삼채 Sam Chae
별달거리 Byeol Dal Geori (Buk)

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락을 들으면 리듬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풍물놀이 또한 제 심장을 울리게 해요. 어깨도 손발도 그 박자와 리듬에 나도 모르게 흰쓸리게 돼요.

**영 :** 기본적으로 두 장르 모두 악기들의 '앙상블'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가지기 어려운 '함께 함'의 에너지가 있달까요. 여러 악기의 다채로운 음색과 리듬을 느낄 수 있어 짜릿하고요. 합주에 몰입하는 연주자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Q 이번 축제를 통해 깨진 풍물에 대한 편견이 있나요?**

**송 :** 풍물 축제 때 전통 의상이나 전통 악기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상도 자유롭고, 악기도 피아노 등 다양해서 쉽게 풍물에 다가갈 수 있었어요.

**미 :** 솔직히 풍물은 올드하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즐긴 부평 풍물대축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였어요. 눈치 볼 필요 없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풍물놀이에 맞춰 춤을 추고 흥에 몸을 움직여요. 풍물놀이는 나를 또는 너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영 :** 혜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풍물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즐기기엔 나이대가 맞지 않는 장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페스티벌에서 참가한 다양한 나이대의 각양각색 풍물패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편협했다는 걸 깨달았아요. 문득 초등학교 시절 저희 학교에도 풍물패가 있었다는 것도 떠올랐어요. 거기에 참여했다면 꽤 신명 나는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하네요. 지금도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뛰어들어 보고 싶어요!

**Q 다음에 또 가실 건가요? 다음엔 어떤 걸 기대하세요?**

**송 :** 내년에도 꼭 가고 싶어요. 다음 축제 때는 풍물 악기도 간단하게 체험해 보고 풍물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부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투자저축은행
[변호사]
전 용
07:00~
17:00
토요일

**미 :** 당연히 또 갈 거예요. 다음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언젠가는 장구를 배워 참가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생겼어요.

**영 :** 매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와 같은 국알못도 간단한 장단을 배워보고 다른 악기와 합주해 볼 수 있는 연주 체험 부스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아주 단순한 리듬이라도 다른 악기와 합을 맞추는 순간 오는 음악적 희열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나마 경험해 본다면, 국악의 세계에 흠뻑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Q 나에게 풍물은 ~ 다?**

**송 :** 나에게 풍물은 술이다. 마시면 마실수록 흥이 나는 술처럼, 보면 볼수록 즐거워지는 풍물.

**미 :** 미친 박자감

**영 :** 나에게 풍물은 '사이키델릭'이다. 무아지경의 세계로 진입한 듯한. 영적인 느낌.

# 부평풍물대축제 속 청년들

오재라

부평풍물대축제

‘풍물’은 정녕 ‘옛것’에 불과한가? 여기에 부평풍물대축제를 만들어 가는 청년들이 있다. 풍물을 낯설게만 느끼는 우리들. 또는, 가까운 곳에 풍물 축제를 두고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 두 청년이 우리에게 외친다. “풍물이 얼마나 재밌는데!”

1

##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이정현 님을 만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잔치마당'은 인천에서 31주년을 맞이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금다래꽁〉, 〈동동마을을 구해주세요〉, 〈동그랑땡〉 등의 국악극도 올리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Q 풍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 처음 접해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후 고등학교에서도 장구를 더 하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Q 잔치마당'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하시잖아요. 공연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관객과의 호흡'을 가장 신경 써요. 아무리 공연자들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관객과의 소통이 잘 안되면 성공한 공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분들께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잘한다!", "얼씨구!" 같은 추임새 또는 박수 같은 상호작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Q 역시 풍물은 보는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객분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대로 올라와서 같이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어요. 어린이 국악극 <금다래꿍>을 예로 들자면, 공연 도중에 어린이 관객을 무대 위로 올려서 같이 버나돌리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요. 극 중 마지막에 할머니가 손녀를 찾는 부분에서는 "손녀가 어디 있지"하면서 관객 중 한 명을 무대로 올려요. 이런 식으로 관객분들께 재미 요소를 드리면서 소통하는 편입니다.

**Q 정현 님이 생각하시는 부평풍물대축제만의 특색이 있을까요?**

거리를 통째로 막고 축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길 위에 무대가 있고 걸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무대가 있는 구성이 신기했어요. 각 지역의 농악이 풍물 축제 때 한 번에 모여서 공연한다는 것도 기억에 남아요. 쉽게 보지 못하는 농악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Q 사실 '풍물'이라고 하면 접근하기 어렵거나 지루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풍물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제가 느끼는 매력은 일단 타악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점이에요. 한 악기가 아니라 꽹과리, 징, 장구, 북 등의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채로운 음악이라는 매력이 있죠. 특히 상모를 돌리

는 경우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지잖아요. 한 번 보면 정말 푹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풍물대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일원으로서, 축제 참여자분들 또는 독자분들께 풍물이 어떻게 비치면 좋을지에 대한 바람이 있으신가요?**

풍물 국악 전통 음악이 어렵지 않도록 많은 예술인이 좋은 공연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 공연장 또는 풍물대축제처럼 여러 축제에서 접해보실 수 있으니 많은 분께서 풍물의 웅장함과 매력, 한국인의 흥을 직접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ITCASH
032-519-0119 4층
문화부동산 514-6611
복권판매점

부평풍물대축제
부평플리마켓

www.kumkang.com
MKANG
경비 신임 교육
6F
GRAND OPEN

富平風物

2

##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카롱, 김은지 님을 만나다

**Q 우선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애칭을 써요. 저는 '카롱'입니다. 마카롱을 좋아해서요.

**Q 반갑습니다 카롱님. 오늘 풍물대축제에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부스는 어떤 부스인지 궁금해요.**

'새활용 나무 칠판' 부스예요. 저희 수련관에 목공실, 도예실, 생활공예실, 공작실까지 총 4개의 특성화실이 있는데 그 중 목공실에서 하는 활동을 부스로 만든 거예요. 목공실에서 서랍함이나 연필꽂이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면, 자투리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자투리들을 다시 다듬어서 칠판으로 재탄생시키는 부스입니다. 그래서 '새활용'이에요. 수련관에 여러 활동이 있지만, 풍물대축제 부스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취지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목공 활동을 주제로 부스를 열었어요.

부평풍물대축제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

INCHEON
우리소아과
정 소 년 · 성 인
바른이예쁜이
치과교정과
OSB저축은행
365
부평
약국
나누리병원
부평풍물대축제
풍물유대

**Q 취지가 너무 좋네요! 카롱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부평풍물대축제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물 축제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풍물'이라고 하면 되게 예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풍물은 '이제 잘 안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부평풍물대축제에 처음 와서 보니까, 풍물을 이어 나가는 동아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은 분이 길을 가면서 연주를 하고 즐기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때 느꼈죠. "풍물이 옛날 것만은 아니구나"하고요.

**Q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도 풍물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요.**

지난 상반기에는 장구나 상모돌리기 같은 것들을 간단히 배워봤어요.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더 회차를 늘려서, 더 다양한 악기들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상반기에 이어서 또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대요. 지난 첫 시간에 한 번 내려가 봤는데 한 회차만 했는데도 아이들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어려서 그런지 리듬감도 좋고요. 풍물이라는 분야가 직접 접해보기 전까지는 쉽게 흥미가 생기지 않는 분야이다 보니, 이렇게 다들 경험해 보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Q 부평풍물대축제를 만들어 가는 청년들 중 한 명으로서, 더 많은 청년이 풍물 축제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풍물'이라는 건 접해보기 전까지는 그 매력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작년까지 그랬고요. 옛날 것 같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죠. 하지만 직접 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풍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좀 더 홍보된다면 많은 분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에 와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인천포크락캠프

송미요

페스티벌 슬로건

인천에 의한, 인천을 위한,
인천의 뮤직 페스티벌
어제의 음악, 내일의 음악

No War, Just Music
Music for Peace

## 캠프마켓에서
## 인천의 뮤직 페스티벌을 상상하다.

캠프마켓에서 진행되는 '인천포크락캠프'는 장소성이 가진 의미가 크다. 캠프 마켓은 일제 강점기 군수 물품을 제조하던 조병창이 위치한 곳이었으며, 6.25 전쟁을 지나 대형 미군 기지로 변모하며 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장소이다. '애스컴시티(미 군수지원 사령부)'라 불린 미군 기지는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유입되며 미군을 위한 우리 음악가들의 공연 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음악은 서구 음악의 영향을 받아 '스탠드 펍', '로큰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이고 발전한다. 이는 부평 즉, 애스컴에서 시작돼 한국 대중가요로 변화하였다.

현재 애스컴시티의 부지는 토양정화를 위해 캠프마켓의 B 구역 일부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개방하지 않은 부지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중이다. 캠프 마켓의 넓은 부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가 흐르는 이 장소에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상상력을 발휘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 개방된 캠프 마켓 B 구역에 속한 건물 중에는 당시의 공연장도 포함되어 있으며, 야구장으로 쓰던 넓은 잔디밭도 있다. 여기서 음악 페스티벌을 기획하고자 한다.

조병창이자 애스컴시티였던 캠프마켓은 장소가 가진 역사를 기억하며 이 장소에서 과거와 현재가 가진 대립 속에서 음악의 힘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인천포크락캠프'가 개최될 장소는 캠프마켓 내부에서 야구장으로 쓰였던 곳이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과거 공연장으로 사용했던 미군 부대 막사 역시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공연장은 '포크 존'과 '락 존' 두 구역으로 나뉜다. 먼저, 포크 존은 미군들이 공연장으로 사용했던 건물 내부에서 고요한 포크 음악가들의 음악이 연주된다. 락 존은

실외로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철제 계단식 벤치 2곳과 무대 앞 넓은 잔디밭, 피크닉 존 뒤에 넓은 가림막 아래에서 음식을 먹으며 강렬한 락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실외 큰 잔디밭 외곽으로 부평을 대표하는 식음료 코너와 의무실, 편의점, 게시판, 휴게공간,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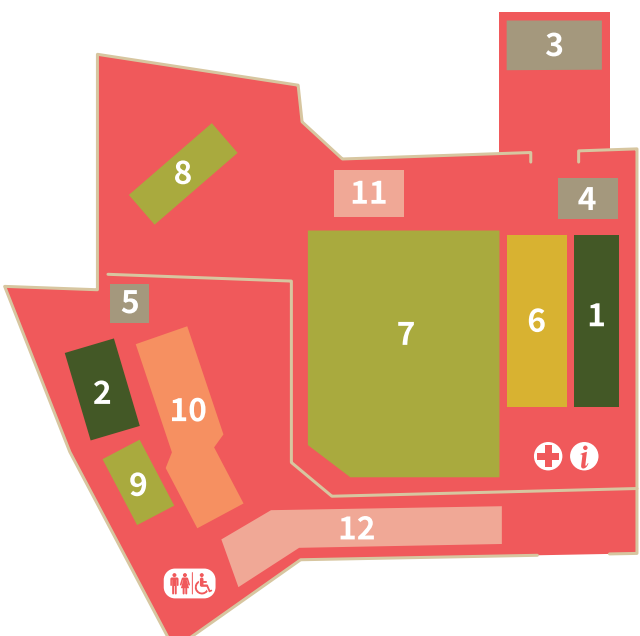
'인천포크락캠프'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는 인천 출신, 인천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애스컴시티에서 음악 활동을 했던 인천의 뮤지션으로 선정했다.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애스컴 뮤직파티>는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과거 애스컴시티에서 활약했던 뮤지션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음악을 즐기는 DJing 세션으로 진행된다.

대중음악의 시작점인 부평에서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음악의 흐름을 느끼고, 다양하게 발전해 온 현재의 음악과 과거의 음악을 오가며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는 '인천포크락캠프'가 되길 기대한다.

* 위의 페스티벌 소개는 실제 아티스트 및 공간 운영자와 협의된 바가 없으며, 부평 여행자 클럽 멤버 3인의 상상력에 의존한 기획입니다.

## 부대시설

1. **야외무대(락존)**
2. **실내 공연장(포크존)**
3. **대기실1**
   : 뮤지션 대기실로 사용 예정
   (현재 음악창작소 PORTROCK)
4. **대기실2**
5. **게시판**
6. **스탠딩존**
7. **피크닉존**
8. **계단식 벤치**
9. **수영장**
10. **야외 휴게시설**
    : 음식을 먹으며 야외 공연 관람 가능
11. **편의점**
    : 간단한 식음료 판매
12. **다이닝존**



1. 야외무대(락존)

2. 실내 공연장(포크존)

3. 대기실1

4. 대기실2

5. 게시판

8. 계단식 벤치

9. 수영장

10. 야외 휴게시설

11. 편의점

## 먹을거리

**1. 막걸리(인천 소성주)**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막걸리. 생산 공장이 부평에 위치한 만큼, 신선도 100% 보장!

**2. 맥주(개항로 맥주)**
인천 지역을 상징하는 맥주, 양조장은 차이나타운에 자리하고 있다. 라거에서 IPA까지 취향대로 즐기자!

**3. 커피(연꽃 빌라)**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분위기의 커피 맛집이 캠프에 상륙했다. 정성이 담긴 음료는 연꽃 빌라의 세심한 큐레이션으로 마련된 독립 서적을 읽으며 여유롭게 기다려 보자.

**4. 빵(캠프 마켓 베이커리)**
캠프 마켓 내에는 전국 미군 부대의 빵 보급을 담당했던 61년 역사의 제빵 공장이 있었다. 미군들이 즐기던 베이글, 나초, 도넛, 쿠키를 옛 스타일 그대로 복원하여 판매 개시!

**5. 김판조 닭강정**
중독성 강한 양념으로 인천인들을 사로잡은 부평 전통 시장의 명물. 조금 번거로워도 뼈 닭강정을 선택한다면 맛의 축복이 있으리!

**6. 교레츠라면**
펜타포트에 김말국(김치말이국수)이 있다면 뮤직캠프에는 교레츠가 있다. 야외에서 먹는 돈코츠 라멘은 더욱더 호사스러운 맛!

**7. 더히든키친**
유쾌한 미국인 셰프가 만드는 라자냐와 뇨키, 그 맛은 부평인이라면 이미 익히 들어왔을 터. 생면으로 만드는 만큼 수량은 한정 판매!

## 타임 테이블

| | 포크존(실내) | 락존(야외) |
|---|---|---|
| 12:00 ~ 12:30 | 파제 | |
| 12:30 ~ 13:00 | | 나의 노랑말들 |
| 13:00 ~13:30 | 힙노시스 테라피 | |
| 13:30 ~ 14:00 | | 빛과소음 |
| 14:00 ~ 14:40 | 백영규 | |
| 14:40 ~ 15:20 | | 써드스톤(박상도) |
| 15:20 ~ 16:00 | 유심초 | |
| 16:00 ~ 16:40 | | 배드램 |
| 16:40 ~ 17:20 | 쟈니 리 | |
| 17:20 ~ 18:00 | | 뷰렛 |
| 18:00~ 18:40 | 김광진 | |
| 18:40 ~19:30 | | 키보이스 |
| 19:30 ~ 20:30 | 서수남 | |
| 20:30 ~ 21:30 | | 송창식 |
| 21:30~ | 에스컴 뮤직 파티<br>- 신중현 등 작고한 뮤지션들의 음악 소개 | |

## 아티스트 소개

**1. 파제 Pa.je ▶ 사천진 걸음마**

인천 출신의 뮤지션으로, 2020년 연주곡으로 채워진 [Pa.je Archive]를, 2022년 EP [관성의 바깥]을 발매했다. 따스한 어쿠스틱 사운드의 음악과 독백하듯 담백한 그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파제만의 색을 만든다. 미군 부대 옛 공연장인 포크 존에서 첫 시작을 한다. 과거 속에 현재를 느끼며, 눈을 감고 그의 음악을 통해 과거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나의 노랑말들(나노말) ▶ 우주미아**

부평에 거점을 두고 활동 중인 일렉트릭 팝 밴드. '러버맨', '백노루양' 2인조로 시작, 드러머 뚜드를 영입해서 현재 3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까지 '나의 노랑말들'로 활동하다 지금은 '나노말'로 이름을 변경했다. 대표곡으로 '우주미아', 'Yellow Poney', 'Karma'가 있고 정규 앨범 [행복 회로 부수는 중]을 끝으로 완성된 행복 회로 시리즈의 팝 감성을 이번 페스티벌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힙노시스 테라피 ▶ +82(네이버 온스테이지)**

인천 출신 랩퍼이자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히피는 집시였다' 멤버 '제이 플로우'와, 기리보이와 함께 우주비행크루에 속한 '짱유'로 구성된 일렉트로닉 힙합 크루. 인천음악창작소의 지원을 받아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 락 밴드 세션으로 만나는 힙노시스 테라피의 리드미컬한 무대.

**4. 빚과소음 ▶ 월미도 바이킹(클럽 빵 공연)**

'빚과소금'이 아닌 '빚과소음'이다. 거친 질감의 기타 노이즈를 소음이라 칭하는 겸손함. 2017년 발매된 첫 EP [Irregular]를 남긴 채, 2018년 10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누군가 부평지하상가를 로-파이한 서프락에 실어 노래했다는 걸, 적어도 부평 사람은 기억해 주었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5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캠프 마켓의 무대에 오른다.

**5. 백영규 ▶ 월미도 바이킹(클럽 빵 공연)**

7080 포크팝의 대가 백영규는 인천을 소재로 한 노래 '추억의 신포동'과 '성냥공장 아가씨', 인천 맥주축제 로고송 '송도로 가자'를 만들었다. 그의 지치지 않는 꾸준한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스타일이 인상적이다. 그만이 가진 폭넓고 다채로운 음악을 이 자리에서 느껴보자.

**6. 써드스톤(박상도) ▶ Astral Projection(인천 노크 공연)**

부평의 라이브 클럽 '락캠프'의 무대에 매주 오르면서 음악적 성숙을 꾀했던 싱어송라이터 박상도를 주축으로 활동하는 블루스 사이키델릭 락 밴드. 2007년 첫 앨범 [Third Stone]으로 데뷔하여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포함한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인천 기반 레이블 루비 살롱에 소속되어 있으며, 밴드명은 지미 헨드릭스의 'Third Stone From The Sun'에서 따온 것. 락 밴드로서의 성숙함과 건재함을 느끼게 해준 지난 2월 발표된 앨범 [Psychiatric Hospital]의 첫 트랙 'Astral Projection'으로 무대를 연다.

**7. 유심초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두 형제로 구성된 2인조 음악 그룹으로 어린 시절 부평에 살며 애스컴을 통해 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대표곡으로는 '사랑이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사랑하는 그대에게' 가 있다. 담담하게 음미하는 시적인 가사와 가슴속 잔잔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벌써 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포크팝 캠프 페스티벌에서 만나자."

**8. 배드램 BADLAMB ▶ Love, lies, bleeding**

인천 출신 멤버가 소속된 배드램은 얼터너티브/그런지 락과 프로그레시브 락의 성향이 어우러진 음악으로 주술에 걸린 듯한 사운드가 흔치 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2020년 11월에 발매한 앨범 [Frightful Waves]는 '최고의 데뷔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락 음반 부문 후보에 올랐다. 'Love, lies, bleeding'은 6분이라는 긴 곡이지만 길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흐름의 서사를 가진 곡이다.

**9. 쟈니 리 ▶ 뜨거운 안녕**

미 8군, 부평 애스컴에서 활동했던 쟈니 리는 1959년 쇼보트 극단 단원으로 음악을 시작해 데뷔 70년 차를 앞둔 전설이다. '사노라면'의 원제목인 '내일은 해가 뜬다'를 불렀고, 히트곡으로는 '뜨거운 안녕'이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키 보이스 '윤항기'와 함께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10. 뷰렛 ▶ 뜨거운 안녕**

부평의 로컬 락스타 문혜원이 보컬로 활약하고 있는 모던 락 밴드이다. 2000년 '디비딥 밴드'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 '뷰렛'의 보컬로 활동 중인 문혜원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강력한 기타 사운드로 무대를 뜨겁게

만드는 락스타임과 동시에 뮤지컬 '황진이', '노트르담 드 파리', '헤드윅', '대장금' 등 여러 뮤지컬에 출연했다. 장르를 넘나들며 관객을 휘어잡는 그녀의 장악력에 빠져들어 보자.

**11. 김광진 ▶ 지혜(온스테이지)**

인천 동구 송림동 출신의 바래지 않는 미성을 가진 음악가. '마법의 성', '여우야' 등의 곡으로 유명해진 '더 클래식'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2017년 3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와 고향인 '배다리'를 노래했다. 인천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인천을 위한 일이라면 협조할 의향을 밝혀왔던 그가 이번 페스티벌에 합류한 건 반가운 일. 더 클래식 시절의 히트곡 마법의 성으로 시작하여 어스름이 깔릴 때쯤 여우야를 듣게 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

**12. 윤항기(키보이스) ▶ 윤항기 노래모음**

부평 애스컴에서 활동한 '한국의 비틀스'로 불리는 '키 보이스'의 멤버이다. 1963년에 데뷔한 윤항기는 '장밋빛 스카프',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행복합니다' 등 락에 포크, 트로트를 합친 퓨전 음악을 선보였고, 한국 락 음악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가수 활동 중단 후 목사의 삶을 살다가 2014년 가수로 복귀를 선언, 지금까지 다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포크락캠프'에서 윤항기와 60년지기 쟈니 리와의 무대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13. 서수남 ▶ 동물농장 + 겨울바람 + 수다쟁이 + 팔도유람**

미8군, 부평 애스컴에서 활동을 시작한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이다. 전설적인 '서수남과 하청일' 듀오로 활동했고 뮤지션뿐만 아니라 코미디언까지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한 아티스트다. 대표곡으로 '동물농장', '과수원길', '수다쟁이'가 있고, 헤드라이너 서수남과 함께라면 모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4. 송창식 ▶ 나의 기타 이야기(ebs 공감)**

불후의 명곡 '나의 기타 이야기'가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라는 가사로 시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동네가 인천 중구 신흥동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어릴 때부터 음악 신동으로 불리었던 그가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서 찾아낸 중고 음악 서적으로 음악 이론을 독학했다는 것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자신의 모든 일이 '인천이랑 관련이 있는 일'이라며 자신의 뿌리를 밝혀온 그는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매주 라이브 무대에 오르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의 풍경이 담긴 음악을 인천의 무대에서 만나보자.

## 애스컴 뮤직 파티 플레이리스트 ▶

**1. 안다성 - 체리핑크 맘보**
원곡은 Cerisiers Roses et Pommiers Blancs 샹송 곡이고, 쿠바 출신 '페레즈 프라도'가 맘보 버전으로 부르면서 히트했다. 한국에서는 1961년 안다성이 부르면서 히트시켰다.

**2. 김시스터즈 - 다방의 푸른 꿈**
1953년 데뷔한 대한민국 최초의 걸그룹 김시스터즈. 김시스터즈 멤버인 김숙자의 어머니인 이난영의 곡을 스윙 풍으로 편곡한 곡이다

**3. 쿨시스터즈 - 왜 그랬을까**
70년대 자매로 결성된 여성 트리오 그룹. 트리오의 화음이 키포인트가 되는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특징이다.

**4. 쿨시스터즈 - 즐거운 우리 집**
1974년 KBS 드라마 '즐거운 우리 집'의 주제가로 히트한 곡이다.

**5. 에드훠(Add4) - 비속의 여인**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의 1964년 발매된 한국 최초의 창작 락 앨범.

**6. 신중현과 엽전들 - 미인**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서 3위에 선정된 엄청난 히트곡이자 명곡.

**7. 차중락 -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원곡은 Elvis Presley - Anything That's Part of You로 키보이스 리드보컬 차중락이 불러서 히트시켰다.

**8. 정원 - 허무한 마음**
정창화 감독의 1966년 작품 <허무한 마음>의 주제곡으로 히트했다.

**9. 최희준 - 하숙생**
1965년 KBS 라디오 드라마 <하숙생>의 주제곡으로 히트한 명곡이다.

**10. 한명숙 -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스윙 장르 멜로디와 한명숙의 가창력으로 대히트한 명곡으로 동남아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11. 이금희 - 키다리 미스터 김**
1966년 발표된 곡으로 트위스트 리듬으로 춤을 추는 모습에 많은 인기를 얻었다.

**12. 쟈니 리 - 뜨거운 안녕**
쟈니 리는 1966년 [쟈니 리 가요 앨범]에 수록된 '뜨거운 안녕'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후에 이 곡은 번안되어 Nico의 'Here I am'으로도 발매됐다.

## 나가는 글

캠프 마켓 부지는 B 구역에 이어 다른 구역들도 점차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인천포크락캠프'는 B 구역의 일부인 야구장 일대에서 작은 규모로 기획되었으나, 다른 구역이 점차 개방됨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축제로 보다 많은 부평인과 호흡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캠프 마켓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부평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가상의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하지만 꼭 음악이 아니어도 좋다. 캠프 마켓이 시민에게 부평에 흐르는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보존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캔모아,
# 여름날의 노스탤지어

Music Collective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캔모아는 나에게 마치 애착 인형과 같은 의미가 있다. 얼마나 끌어안고 잤는지도 모를, 아주 납작 해지고 낡아서 때가 덕지덕지 묻은 애착인형 말이다.

시간의 때가 함께 쌓인 만큼 정이 든 그런 존재. 나와 누군가의 학창시절을 함께 했을 캔모아도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2000년대에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 번쯤은 '캔모아'를 들어봤을 것이다. 캔모아는 2000년대 카페 감성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거나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애용했던 장소다. 남녀노소 그네 의자 자리는 인기 만점이었다. 그 외에도 한 번 움직이면 멈출 수 없는 흔들의자, 리필할 때마다 항상 눈치를 봐야 했던 무한리필 생크림 토스트,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 나눠 먹던 생과일 빙수까지. 그 시절 캔모아는 우정과 사랑이 깃든 따뜻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캔모아는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가득했던 예전의 모습에 비해 현재는 훨씬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매장을 찾았고, 과거의 추억을 다시 느껴보고자 방문한 프로라떼들도 있었다.

캔모아는 라떼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2000년대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주며 사람들을 반겼다. 반갑고 익숙한 노래가 나오자, 몇몇 사람들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고음질 음악을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유선 이어폰을 주야장천 끼고 다니던 MP3 시절이 있었다. 과거에는 음악을 들으려면 '소리바다', '벅스뮤직'이라는 음원사이트를 통해 직

접 MP3에 다운받아야 했다. 힘들게 받은 음악에 더 소중함을 느꼈고, 그만큼 MP3에 담긴 음악을 가사까지 외울 만큼 열렬히 들었다.

내 MP3 플레이리스트는 그 시절 노래방 18번 곡을 차지한 절절한 사랑 노래부터, 위로를 주는 가사의 감성 충만한 힙합 노래 같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음악들로 가득 채워졌다. 예전에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어보면서 그때 음악들만이 가지고 있는 낭만과 청춘, 그리고 시간이 흘렀음이 느껴졌다. 어릴 적 기억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듯했다. 2023년이 된 지금도 캔모아가 들려주는 그 시절의 음악들은 달콤한 추억과 여유를 선사해 주었다.

아직도 사람들의 동심과 추억을 지켜 주는 존재 캔모아. 이제는 시간의 때가 타고 빛이 바랬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생과일 빙수를 처음 먹었을 때의 풋풋한 여름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학창 시절이 담긴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공간, 싱그러운 햇살이 비치는 캔모아에서 추억의 감성을 느껴보길 바란다.

**캔모아에서 듣는 명곡 플레이리스트**

프리스타일 - Y
제이,하울 - 사랑인가요
에픽하이 - FLY
8eight - 심장이 없어
다비치 - 8282
SG워너비 - Timeless
Ne-yo - So Sick
보아 - 아틀란티스 소녀
키네틱플로우 - 몽환의 숲
샵 -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마이티마우스 - 에너지(feat.선예)
FT아일랜드 - 사랑앓이
Jason Mraz - Lucky

# 시민에디터 후기

# 송미영

**김서영**
늘 공기처럼 곁에 머무르면서 위로가 되어준 수많은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닌 역사와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음악에도 자그마한 위로를 보내고 싶었던, 음악 여행자클럽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황혜미**
음악을 듣는 일은 늘 즐거웠지만, 누군가와 함께 공유한다는 건 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음악에 관해 공부하고, 알아가고, 미래를 상상하는 일도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음악이 존재하듯 저의 흐름에도 '음악여행자클럽'이 존재할 것입니다.

**문한송**
과거의 음악을 공부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이야기하고, 공연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면 삶이 더 풍부해진다는데, 음악여행자클럽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값진 삶에 더 다가가 봅니다.

# 오재라

**서재욱**
모두가 다른 삶을 살지만 결국 이유만 다를 뿐 음악을 좋아하는 건 모두가 같다고 느낍니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진짜 늦었다고 믿었던 저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에 조금은 덜 불안해도 될 것 같은 오늘을 보냅니다.

**이세라**
이어폰을 끼고 걸으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뮤직비디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있으면 일상도 여행이 된다고 믿어요.. '음악여행자클럽'은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도 저는 음악으로 여행을 하렵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세옥**
문화도시 부평이란 타이틀 속에서 '음악'과 '부평'의 연관성을 음악여행자 클럽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활동 기간 동안 생각과 행동이 더해져 부평이란 도시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넓어진 시야로 애정을 담아 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 히치하이커 락스타

**김민주**
취향은 달라도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부평에서 음악으로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릴 기다렸던 사람들아, 여기 있는 친구들아 또다시 만나요!

**최혜진**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어폰을 끼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음악은 마법 같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음악과 함께라면 아름다운 순간이 되니까요.

**이다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음악을 고르는 일을 좋아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비슷하나 다르고, 미래는 역시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의 음악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기주**
음악여행자클럽 덕분에 이렇게 부평의 뮤직 히치하이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처럼 몸은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 음악으로 인해 부평에 인연과, 추억의 장소가 생겼네요! 음악의 힘이란 이런 걸까요?

## Music Collective

**조연희**
간혹 음악에 취한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만나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며 들었던 음악이 오롯이 가슴에 새겨져, 그 언젠가 이 음악들을 들었을 때 함께한 오늘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을 취하게 한 음악은 무엇인가요?

**오송아**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다정함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럴 때는 이어폰을 꽂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반짝이는 순간들이 분명 떠오를 거예요.

**정민영**
음악이 직업인 지금의 저는 일을 위해서 음악을 의무적이고 분석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수하게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다는 마음을 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용준**
함께한 팀원들 덕분에 다양한 음악 세계를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순수한 음악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음악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 이제 다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가끔 만나거나 마주치면 다시금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꽃피웠으면 한다.

부평 음악 여행자 클럽
문화도시부평 시민 에디터

발간번호 2023-09

발행처 :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행인 : 이찬영 대표이사
발행일 : 2023년 11월
ISBN : 979-11-981513-1-5 (12670)

기획 : 황유경 문화도시센터장
진행 : 이미숙 문화도시센터 창조팀장
운영 : 문화도시센터 창조팀 (문경선 정지혜 문희원 오인석)
편집 : 스펙타클워크 (이종범 곽은비 이채은)
에디터 : 권기주 김민주 김서영 문한송 서재욱 오송아 오세옥
오용준 이다은 이세라 정민영 조연희 최혜진 황혜미
디자인 : ODT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
www.bpcf.or.kr
032-500-2000

본 도서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는 부평구문화재단 및 해당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부
# 이
# C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문화도시부평